

## SERMON 12 OCTOBER 2016

2 Tim 3: 10-4:5, Luke 18:1-8

무엇이 좋은 선생님을 만드나요? 저는 오랜 인상을 남기신 여러분의 선생님을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분과 교통하는 방식에서, 사실에 생동감을 불어 넣음으로, 흥미롭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만들며, 오랜 인상을 남기신 선생님을 기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은 선생님께서 여러분과 그 과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 기억으로 두 분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쳐 주신 Mrs William 과 라틴어를 가르쳐 주신 Mrs Endley 입니다. 그 두 분은 거의 비슷하셨습니다. Mrs Williams 는 체구가 작으시고 좀 고지식하시고 높은 선생님의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방식으로 중요한 영어 문법을 이해 시키시고 중요하게 느끼도록 하는데 재능이 있으셨고 시와 에세이 작성을 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Mrs Endleys 는 검은 머리에 빨간 립스틱을 하시고 극적이셨으며 그리고 다소 무서운 표현을 하셨습니다. 두분 다 어떤 허튼 소리를 용납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다 우리를 존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상급반으로 진학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과목에 대한 열정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도 위대한 선생님이 셧습니다. 우리는 군중들과 함께 가까이  
앉아 있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미해진 몇 천 년 전 사이에서 그들의 삶과 연결이 되었는지 인식합니다,  
심지어 그 메시지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듣습니다. 이것은  
단지 누가 복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비유 입니다. 우리는 누가 복음 에서  
정의에 관한 강조를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필요한 자들을 위해  
누가 복음 4 장 시작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 집니다. 우리는 또한 누가 가  
예수님께서 여성들에게 특별히 과부들의 모든 고통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몇 분 전에 읽혀 질 때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어떤  
감동을 받으셨는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묘사한 재판장과 정의를 위해서  
끈질기게 요구 하는 과부 입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 발아래 모인 군중들이  
그들 주위나 아니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부분으로서 인정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그 비유가 표현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찾는 것에 관한 질문과 함께 시작 됩니다. 그 비유는 문제가 포함된 것을

제기합니다. 중심을 잃어 버리지 않은 기도와 믿음은 우리 시대에, 우리 장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세계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이야기합니다.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소리도, 변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판관이 그녀의 정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는 그 과부의 상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자신의 보호와 안전만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재판장은 과부의 끈질김에 대면해서 행동합니다.

여기에 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남자가 밤에 갑자기 자기집에 방문한 방문자에게 빵을 먹이기 위해 그의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한 남자에 관한 누가 복음 11 장 이야기의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웃이 문을 열어서 대답한 것은 그와 그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은 만약 불의한 부모라도 그들의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거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의 묘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은 지난 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관해서

계속 연결 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며 이 세상의 고통의 외침을 진정으로 듣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누가 복음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재판관과 같지 않다는 것 그것이 초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 믿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종종 판단되는 – 그것은 강조 되는 것의 반대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불의와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대항이고 정의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힘이 없는 사람들과 불의로부터 고통 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유지하는 것 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위를 둘러 볼 때,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 것에 반해 너무 작은 반응을 볼 때 우리의 인내력도 약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생명과 정의를 편에 서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혼자 힘으로 해내는 것은 힘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망설일 때 일으켜 세워줄 다른 주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와 함께할;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줄; 모든 고통의 외침이 무의미함으로 사라질 때;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상기 시킴으로 인해서 인정되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삶의 어려운 상황에 대항해 사람들의 고통의 이야기들, 시편과 다른 글들은 그들 자신의 역사로부터 알게 되는 것 입니다. 그것은 또한 계속 되는 투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부터 우리를 또한 상기 시킵니다. 바로 그 사실은, 어느 것도 변화 되지 않은 듯 하고 우리의 지속성을 고갈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믿어지는 시기에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중동과, 미국, 영국과 여기 호주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 나고 있는지에 관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틀러가 패배하고,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고, 북 아일랜드에 평화가 온 것과, 보스니아 전쟁이 끝이 난 것 등을 잊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폭군을 제거하는 동안에 종종 공백 기간 동안 더 많은 문제들을 양산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변화가 일어 났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항상 불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기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자 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희망의 씨앗을 양육하는 것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라는 기도를 어떻게 매주 기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것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계속 기도 할 수 있습니까 불의와 폭력이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대항해서 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그 사람들이 굳게 유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그들이 아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 주위에서 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크던 작던 간에 정의를 위해서 항상 대항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엘살바도르에 대 주교 오스카 로메로를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는 지배층들에 의해서 불의를 제정하는 것에 대항해서 가난한자들과 비주류자들 편에선 해방운동가 신부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의 현실을 보고 이 투쟁을 그의 삶에서부터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자의 수호자가 되고 정부와 교회의 권력자들에 대항해서 정의를 위해서 섭니다. 어느 날 아침 성만찬을 수행하다가 총격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는 그가 발견한 진리에 의해서 살고 변화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오스카 로메로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들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질문을 할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기도로서 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는 발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의 간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치유와, 평화와 정의를 줄 것을 요청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목적의 비전과 그분의 진리와, 주님 나라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연결되는 것 입니다. 17 세기 로렌스 형제(Brother Lawrence)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습하는 것” 이라고 적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목적과 그의 임재를 실재로 만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 입니다. 그 목적과 임재는 예언적 입니다, 바울이 말한 많은 성경말씀이 예언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의 삶, 그의 가르침, 그의 사역, 그의 죽음과 부활은 예언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아직도 우리 시대에 예언적 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미비 하기 때문 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진리가 권력을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나요.

그것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권력의 남용과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에 장애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좌절의 방향으로 향하나요, 또는 우리는 정의의 방향으로 향하기로 결정하나요, 크기가 어떻든 그것은 우리를 격려하고 유쾌하게 하며, 선의의 비전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심지어 우리의 약점에도 말입니다. 비유에서의 힘없는 과부는 포기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말씀을 듣는 이 들에게 하나님은 불의 한 재판관과 같지 않다는 것을 상기 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고통에고 어떻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 -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종종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 날것이라고 믿을 수 있나요? 그것은 끈질긴 사랑을 통해서가 아닌지요? 다루어야 할 것 중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고통, 불의를 통해서 아파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 변화를 삶 속에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각자에게 우리 역사의 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염려하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기자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는 아마 노래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주 인간적인 것이고 우리의  
무의미한 것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서 기도와 신앙의 사이를 이 비유로 일괄하여 말  
한 것 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어떻게 불의가 한 사람에 의해서 경험된 것이 결국 다른 사람,  
심지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에 의해 대답될 수 있는 지 말입니다.

이 두 인물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훨씬 더 큰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에 의해서 성장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여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의 중심에 놓여  
있고 우리의 삶은 예언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작게 또는 크게 여러 모양으로 예언적일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중요합니다. 각 교회, 각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행동함에 있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언적이어야 합니다.

이 비유가 가장 취약한 사회와 가장 힘있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단지 우연의 기회는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 사이에 분리할 때, 끊임 없는 기도, 개인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삶을 위해서 마음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비전에 활력을 가져오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과 예수그리스도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장로교 신앙 선언문” 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악을 이기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우리를 고통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용기와 에너지를 줍니다 모든 반대에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인간을 위하여 그것은 정말로 옵니다.

자 우리 낙담하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의 전적인 나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느끼는 작은 감정도 그분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하시는 사랑, 정의, 평화, 진실과 세상의 희망을 활동의 일부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